

‘불굴 의지’ 방산 허훈, 의병 명문가정신 깨웠다

조선 말 격변기를 살았던 영남 유학자이자 의병장인 허훈 선생(1836~1907)의 서간이 공개돼. 한말 의병운동과 지식인의 역할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19일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 사백(83·광주 북구)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4월 11일)을 기념하고자 방산 허훈 선생의 서간 1점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서간은 가로 46.3cm, 세로 24cm 크기로, 1890년 3월 경남 산음에 은거 중인 지인에게 보낸 편지다.

편지에는 오랜 기간 소식을 전하지 못한 데 대한 안부와 함께, 스승의 부고와 흥년으로 혼란스러운 사회상, 그리고 가족에 대한 소회가 담겨 있다. 특히 민심이 흉흉하고 도적이 봉기하는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조선 말기 사회 불안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허훈 선생과 성산 허경, 왕산 허위 3형제는 조선 말 의병운동의 중심 인물로 꼽힌다. 이들의 삶은 단순한 학문적 전통을 넘어, 국가 위기 속에서 행동으로 나선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준다.

3형제가 살았던 19세기 후반은 을미사변과 을사늑약 등 국권 침탈로, 조선사회의 전반이 격랑에 휩쓸려던 시기였다. 이들은 영남 퇴계 학통을 잇는 유학자였지만, 일본 제국주의 침탈 앞에서 학문에만 머

심정섭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 서간 1점 공개 의병 3형제 항일 정신 등 재조명…호남과 인연도

무르지 않고 의병 봉기에 나섰다.

장남 허훈은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청송에서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는 아우들의 의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000여 두락의 전답(현 300억원 추정)을 매각해 군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이러한 공로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4등급)으로 이어졌다.

둘째 허경(1851~1939)은 을사늑약 반대 상소를 올린 뒤 의병장으로 활동하다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이어갔고, 셋째 허위는 대한제국 의정부 참찬을 지낸 뒤 전국 단위의 의병을 이끈 대표적 인물로 평가된다. 허위(1854~1908)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이 추서됐다.

이들 형제의 정신은 제자들에게도 이어졌다. 허훈의 제자인 장지연은 황성신문 사장으로 활동하며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비판한 ‘시일야방성대곡(이날에 목을 놓아 통곡하리라)’을 발표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일제의 침탈에 맞선 대표적 언론 저항으로 기록된다.

실제로 1917년 전남 곡성에서 군자를

발간할 당시 서문을 받고자 많은 이들이 장지연을 찾자, 그는 “모든 것이 스승인 방산 허훈 선생의 가르침에서 나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허훈 선생은 호남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따라 싸운 호남 의병들의 활약과, 전주성 전투에서 투쟁한 김천일(니주출신), 남강에서 자결한 김전일 선생의 부자 등의 충절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호남-경상 등 지역을 넘어 선 연대 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서간 공개는 단순한 유물 소개를 넘어, 조선 말 지식인들이 시대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의미를 갖는다. 학문과 실천을 결합한 ‘행동하는 지식인’의 전형을 기록으로 평가된다.

심정섭 사백은 “호남과 인연이 깊은 방산 허훈과 두 아우는 모두 의병운동에 참여한 대표적인 애국지사”라며 “이번 서간은 당시 사회 상황과 지식인의 고민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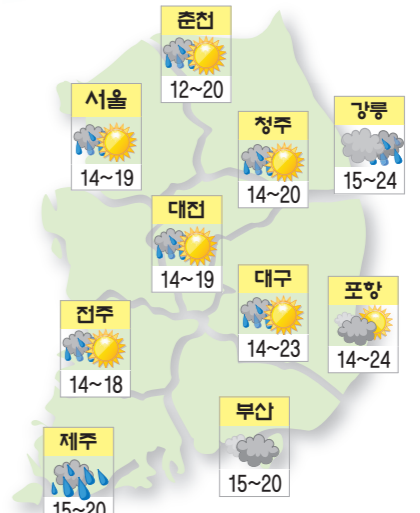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씨가 1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4월 11일)을 맞아 유학자이자 의병장인 방산 허훈 선생의 서간 1점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서간은 가로 46.3cm, 세로 24cm 크기로, 1890년 3월 경남 산음에 은거 중인 지인에게 보낸 편지다. 최기만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5:55	달림	07:24
맑음	19:09	달림	22:47



광주	14~19
목포	14~18
여수	13~21
순천	13~22
구례	13~20
광주	12~20
신도	13~21
흑산도	12~15
고흥	13~21
진도	14~17

목포	미물(고)	04:10 / 16:09
	샘물(저)	09:15 / 21:20
여수	미물(고)	10:49 / 23:28
	샘물(저)	04:43 / 16:49

“망상에 빠져” 친형 위험

만년필 ○..망상에 빠져 친형을 전기충격 등으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20대 친동생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 강제 처분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현 재판장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광주 자택에서 친형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A씨는 전기충격기 등으로 친형을 위협하며 수천만원 상당의 합의를 요구했다.

자신의 정신질환 증상이 친형 때문에 비롯됐다고 판단한 A씨는 친형을 원망하며 적개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

친형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이 있는 A씨가 피해망상과 충동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한다”면서 “사고 장애 등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명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공군 1전비, ‘스페이스챌린지 in 광주’ 개최

내달 9일...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양한 볼거리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오는 5월 9일 광주 광산구 기지에서 ‘제47회 스페이스챌린지 2026 in 광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페이스챌린지는 1979년 모험항공기 날리기 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47회를 맞는 항공우주 체험 행사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과 도전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형태로 확대됐다. 지난해 행사에는 약 1만1000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 대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행사는 다양한 항공우주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두 차례 진행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T-50, TA-50 Block2, F-15K, KF-16 등 공군 주력 항공기 전시가 이뤄지며, C-130 수송기 내부 관람도 가능하다. 항공무장과 비행 장구 전시, 항공 시뮬레이터 체험, 태양 관측 프로그램 등도 마련돼 항공우주 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고동동력기와 에어로켓 날리기, 드론

체험, 모형 위성 전시 등이 운영되며, 낙하산 에어바운스와 조종복 착용 체험, 페이스페인팅, 캐릭터 포토존 등 어린이들을 위한 즐길 거리도 준비된다. 공군 군악대 공연과 의장대 시범도 진행돼 볼거리를 더한다.

행사 당일 부대 출입은 오전 8시30분부터 가능하다. 도보 관람객은 부대 후문을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는 광주송정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가용 이용객은 정문과 후문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다.

체험 프로그램 중 고동동력기 날리기와 폼보드 점동 비행기 날리기는 각각 선착순 100명으로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4월 20일 오후 1시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우천 등 기상 악화 시에는 5월 10일로 연기된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관계자는 “스페이스챌린지는 항공우주를 향한 꿈을 키우는 동시에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광주의 하늘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스페이스챌린지 공식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정호 기자 jih4415@gwangnam.co.kr

중국산 짝퉁 5000점 밀수·판매한 40대 ‘실형’

5년간 6억원 챙겨...관세 포탈·차명계좌까지 동원

중국산 명품 위조상품 5000점을 밀수입해 판매하고 관세를 포탈하는 한편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긴 40대 업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전남 무안의 한 창고에 보관한 위조 물품은 가방과 의류 등 5429점에 달했으며, 정품 기준 시가는 101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2022년 총 656차례에 걸쳐 5100여건의 위조 상품을 수입하면서 세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가 사용 물품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108차례에 걸쳐

트를 운영하며 총 3928차례에 걸쳐 4633점을 판매해 약 6억9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전남 무안의 한 창고에 보관한 위조 물품은 가방과 의류 등 5429점에 달했으며, 정품 기준 시가는 101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2022년 총 656차례에 걸쳐 5100여건의 위조 상품을 수입하면서 세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가 사용 물품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108차례에 걸쳐

관세를 부정하게 줄인 사실도 드러났다.

여기에 배우자 명의를 이용해 수입 신고를 하는 등 타인 명의를 활용한 관세 회피도 15차례나 이뤄졌다.

범죄수익의 은닉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위조상품 판매 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3316차례에 걸쳐 약 6억원 규모의 수익 흐름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약 5년에 이르러, 위조상품 규모와 판매 금액이 매우 크다”면서 “관세 제도를 악용하는 한편 범죄수익까지 은닉하는 등 범행 전반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원인 규명 ‘막바지’

경찰, 조사 결과 조만간 발표...관련자 신병처리 검토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사고 원인 규명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가 드러날 전망이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4~15일 경남 울산 일원에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관계기관과의 합동회의를 열고 붕괴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그동안 진행해 온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구조적 결합 여부와 시공·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가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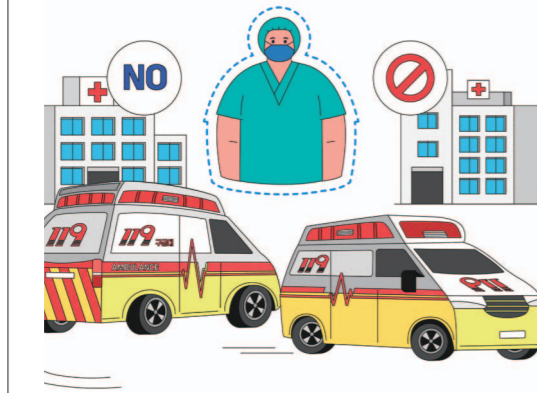
과수)으로부터 사고 원인과 관련된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관계기관 회의와 국과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추가 검토를 거쳐 수주 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감정 결과가 확보되는 대로 관련자들에게 대한 신병 처리 등 형사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경찰 입건자들은 구일종합건설과 하청업체 등 공사 관계자,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공무원 등 30명이다. 이중 24명이 출국금지 됐다. 임영진 기자 looks@

“응급환자 어찌라고”...전남 ‘응급실 뱅뱅이’ 급증

2년 새 3배 증가...환자 이송 오히려 8083건 감소 현장체류 2시간 초과 20% ↑...“골든타임 위협”



전남 지역에서 ‘응급실 뱅뱅이’ 현상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수용 거부 사례가 2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 응급환자 이송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골든타임 확보’라는 응급의료의 기본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소방청과 전남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응급실 수용 거부 건수는 2023년 973건에

서 2024년 1406건, 2025년 2701건으로 급증했다. 2년 사이 1728건 늘어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응급환자 이송 건수는 감소했다. 2023년 8만9324명에서 2024년 8만4773명, 2025년 8만1241명으로 2년 새 8083건(9%) 줄었다. 환자는 줄었지만 병원 수용은 더 어려워진 셈이다. 환자를 제때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병원을 찾지 못해 다시 옮겨지는 ‘재이송’은

2023년 236건에서 2025년 274건으로 16.1% 증가했다. 현장 체류시간 증가도 뚜렷하다.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이상 현장에 머문 사례는 2023년 330건에서 2025년 397건으로 20.3% 늘었다. 1시간 초과 사례 역시 4969건에서 5002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추세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119 구급대가 현장 도착 후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30분 이상 지연된 사례는 2023년 3만8267건에서 2025년 9만271건으로 2.4배 증가했다. 60분 이상 지연은 3882건에서 9882건으로 2.5배, 120분 초과 사례도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국 응급환자 이송 건수는 2023년 199만 3047건에서 2025년 173만2957건으로 13.1% 감소했다.

재이송 통계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남은 별도 집계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이를 현장 체류 지표로 대체하고 있어 전국 단위 비교와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수용 거부 증가와 이송 지연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심각한 경고 신호로 보고 있다.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응급의료 체계 전반의 수용 능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환자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지역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현장 체류시간 증가와 수용 거부 확대는 응급의료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